2020년
5월 15일
제 59 호

MBC 사우회보
mbcsau.com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 발행처: (사)문화방송사우회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 TEL: 02-722-7416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차인태 ● 편집장: 김상옥

MBC사우회 창립 30주년을 맞다

문화방송 퇴직 사원들의 모임인 사우회는 1990년 5월 18일 창립총회를 갖고 제1기 임원진(회장 박근숙, 수석부회장 노서을, 상임부회장 이만우, 부회장 박종민 외 3인, 이사 변현규 외 12인, 감사 고처황, 신형창)을 구성했으며, 6월 1일 중구 정동 22번지 舊MBC사옥 1015호실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1991년 1월에는 문화보험판매유한회사를 설립하고 MBC 본사 및 지역사의 건물, 설비, 자동차 등의 보험 업무를 알선하기 시작했으며, 3월 3일 제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봄에는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 겨울에는 송년모임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춘계 및 추계 등산, 바둑, 낚시, 골프대회를 열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1994년 제2기(회장 박근숙)에 이어 1997년 제3기(회장 박근숙), 2000년 제4기(회장 우윤근), 2004년 제5기(회장 김민식), 2008년 제6기(회장 강영구), 2012년 제7기(회장 김수량), 2016년 제8기(회장 이연헌)를 거쳐 2019년 제9기(회장 차인태)에 이르렀다. 현재 회원은 1,42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봄철 단합대회 무산, 창립 기념품으로 쌀(20Kg) 전달키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우회 정기총회에 이어 해마다 5월에 열렸던 단합대회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형편이 좋아지면 정기총회를 겸한 단합대회를 문화동산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는 그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사무처는 창립30주년 기념품으로 회원들에게 쌀(20kg)을 전달하고자 지난번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었다.

다만 쌀은 연회비 5년 이상 장기미납자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드리게 되며(정관 제8조 4항), 이를 위해 사무처는 작년부터 장기미납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연회비 입금을 간곡히 독촉해왔다. 결과 많은 분들이 미납 회비를 보내왔지만, 아직도 상당수 회원들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이분들에게는 부득이 전달이 어렵게 됐다.

또한 원활한 수령을 위해 주소를 확인 중인데, 주소가 변경됐거나 수령하고 싶은 곳이 따로 있을 경우 사무처(02-722-7416, 789-3820)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란다. 쌀은 상반기 중에 가정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3월 15일 이후)

박성제 MBC사장은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행렬에 미력이나마 동참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봉급 중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보내왔습니다. 사우회 사랑에는 선후배가 따로 없습니다.

- 박성제(MBC사장) 100만원
- 박진홍(편제) 30만원
- 유민환(편제) 20만원
- 박영태(기술) 20만원
- 황선영(기술) 20만원
- 안호선(관리) 20만원
- 김경일(관리) 10만원
- 이완수(대구) 10만원
- 송기남(관리) 10만원
- 문용수(관리) 10만원
- 노영혜(사무처)10만원
- 박용흥(관리) 10만원
- 강정수(관리) 10만원
- 양홍열(기술) 10만원
- 김세일(관리) 10만원
- 황기찬(편제) 10만원
- 조한건(관리) 10만원
- 김진홍(관리) 10만원

창립 전후 이야기

노서을(고문)

MBC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사우회를 만든 산파역 중 한 분인 노서을(기술)고문을 뵙고 창립 당시 얘기를 들었다. 97세의 고령이지만, 걷기에 다소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건강하신 편이다. 타고 나신 것 같다. 음성도 낭랑하고 기억력도 양호하셔서 대화가 수월했다. 먼저 창립 30년을 맞는 소감부터 여쭤봤다.(편집장)

감개무량하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어느 틈에 세월이 이만큼 흘렀네요. 사람들이 많이들 돌아가셔서 지금은 볼 수도 없고...

1990년 초.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회사 밖으로 밀려난 해직자 97명이 모인 자리에서 'KBS가 작년에 사우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사우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모두 공감했다. 부문별로 편성제작 박종민, 보도 이만우, 기술 노서을, 업무 이태림, 관리 고처황 등을 대표로 호선하고 김인규를 간사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립 논의에 착수했다. 모임 장소는 당시 이만우 씨가 사장으로 있던 과학신문사였다.

이제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추천된 분들이 누구냐 하면 서규석, 박근숙, 우윤근, 임택근 씨 이런 분들이었다구. 순서대로 한 분씩 만나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지.

먼저 당시 방송위원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서규석 씨를 찾아가 회장을 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서 부위원장은 '취지에는 백프로 공감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돼서 아쉽다'고 했다. 방송위원회 규정 상 재임 중에는 외부 겸직이 불가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당시 광고공사 감사를 하던 박근숙 씨를 찾아가서 의사를 물었지. 그랬더니 '하겠다' 는 거야. 그래서 박근숙 씨를 중심으로 「MBC사우회 창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박근숙, 노서을, 박종민, 이만우, 이태림, 이철원, 변현규, 이낙용, 신형창, 천기정, 김인규 등 열 한명이 추진위원이 돼 본격적으로 사우회 조직을 시작했어요.

마침내 1990년 6월 1일. 187명의 퇴직 사우들이 옛 MBC 건물 옆에 있는 식당 '이따리아노'에서 대망의 창립총회를 가졌다. 미리 준비한 사우회 정관이 의결되고 임원 선출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고문 이수홍, 임택근, 서규석, 우윤근, 김인현(5명), 회장 박근숙, 수석부회장 노서을, 상임부회장 이만우, 부회장 박종민, 이태림, 이철원, 이병춘(4명), 감사 고처황, 신형창(2명), 이사 변현규, 최규철, 임성기, 이낙용, 이득렬, 오정수, 최인열, 권순복, 천기정, 강영숙, 최정연, 김창제(12명) 등이 박수 속에 선임되고, 사무처는 총무이사 김인규, 사무국장 김세중이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사우회를 만들기는 했는데 운영할 자금이 있어야지. 연회비 만원씩 거둬봐야 실무자 밥값도 안 나오잖아. 다들 퇴직한 사람들이라 수입도 신통치 않으니 따로 찬조금 내는 분도 없고. 할 수없이 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최창봉 사장을 찾아갔었지요.

회장단은 최 사장에게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방송계의 원로로서 MBC 초창기에 방송부장을 했으며, 퇴직 방송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최 사장은 흔쾌하게 지원을 약속했다. 옛 MBC 건물인 경향신문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그 임대료를 부담해주는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본사의 회계처리 상 사우회에 대한 금전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보험 업무를 사우회가 맡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였는데...

MBC의 건물, 장비 등 일체의 보험 계약에 대한 업무대행을 사우회가 맡아서 진행함으로써 알선 수입금을 사우회의 수익으로 한다는 발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했고, 이만우 상임부회장과 박종민 부회장이 보험 초급대리점장 자격시험을 거쳐 1991년 5월 법인보험대리점인 '문화보험판매유한회사'(대표이사 이만우, 이사 노서을, 김재수)를 설립하게 된다.

문화보험회사는 1991년 5월에 설립했더랬는데, 보험 알선업무를 공식적으로 개시한 것은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다음 해 4월부터라고 기억되네요.

그렇게 시작된 보험 알선 덕분에 사우회 수익이 생겨서 동호회 지원도 해주고...오늘날까지 사우회 재정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역시 본사의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일하기가 쉽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향 MBC에게는 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상단 왼쪽부터)
1990년 퇴직 사우 간담회
1991년 정기 총회
1994년 송년모임
1995년 단합대회
1996년 단합대회

경조사항

구순: 이현보(업무)31.6.18

팔순: 유흥철(관리) 41.07.01
백재인(편제) 41.07.02
강웅부(편제) 41.07.11
이종열(관리) 41.07.15
이기선(기술) 41.07.20
박영일(편제) 41.07.23

고희: 김희숙(관리) 51.06.03
오순희(관리) 51.06.13
지복현(편제) 51.06.19
정성만(보도) 51.07.22

회갑: 이성수(관리) 60.07.16

결혼: 한재수(관리) 아들 3. 7
황길수(보도) 아들 4.17
유한기(편제) 딸 4.25
이선재(보도) 딸 5.16
오주환(업무) 딸 5.16
박용규(기술) 딸 5.16
주철환(편제) 아들 5.23

부음: 조학동(기술) 모친상 3.6
김정제(관리) 모친상 3.23
신선희(편제) 모친상 3.30
김형태(편제) 빙모상 4.3
신대근(보도) 장모상 4.16
나종석(보도) 장인상 4.21
김도원(보도) 장모상 5.3
김종진(편제) 부친상 5.7
김갑수(관리) 부친상 4.11

연회비

3월
정준모('18 80세 완납) 정진도('18) 권윤성('19~'20) 김관영('20)
하광언('20 80세 완납) 김규수('13~'20) 표찬일('20) 박삼열('21~'23)
송기남('19~'20) 민영기('14~'20) 박성숙('21~'26) 문용수('20)
심우승('08~'20) 김귀현('17~'20) 유민환('20) 엄기영('19~'20)
김철순('20) 하재율('16 80세 완납) 신해명('20) 오명환('20)
황윤환('15~'20) 최양묵('17~'20) 정상자('17~'20) 송재익('16~'20)
하순봉('16~'20) 성창용('15~'20) 김성수('19~'20) 남기두('20)
홍이표('20)

4월
정기정('10~'20 80세 완납) 박우정('17~'21) 이종숙('12~'20)
김광용('15~'20) 김봉성('15~'20) 이현규('14~'24 80세 완납)
양승원('14~'20) 이형균('12~'20) 최경미('11~'20) 최종수('10~'20)
오학균('16~'20) 김휘성('18~'20) 한승영('18~'19) 정길용('14~'20)
천기정('11~'16. 80세완납) 조미숙('18~'20) 고영석('17–'18)
이웅재('16~'20) 유승재('19~'20) 방남순('17~'20)
박창순('20) 김동한('13~'20) 김 용('05~'20) 황기찬('20 80세 완납)
신준우('11~'20 80세 완납)

5월
양홍열('20) 이오기('20) 고영석('19) 김관중('13~'20)
이상열('18~'20) 김철영('20) 진두범('18~'20)
임웅길('18~'20 80세 완납)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최종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박종진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심우승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길
정치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윤창호 강원 홍천군 홍천읍 오리나무정길

ANN: 최경미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기술: 오학균 강원도 홍천군 남면 고드래미길
김경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하병호 서울 동작구 등용로

업무: 천기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김봉성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길
박태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음 덕소로

관리: 이순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전주: 김 용 전주 덕진구 안덕원로

특별회원: 정기정(감사) 경기 김포시 유현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계환(ANN)
그동안 연락두절이었으나 지인을 통해 작년 5월 24일 별세 확인. 향년 91세. 1961년 KBS에서 MBC로 이적. 아나운서 실장 역임. 전 한국방송인클럽 회장.

백병기(업무)
4월 1일 노환으로 별세. 향년 91세. 1967년 MBC에 입사 후 업무부문에서 근무. MBC광주지사장 역임 후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했음.

전지웅(관리)
숙환으로 10여 년간 신장투석을 하며 투병생활을 해오다가 3월 25일 별세. 향년 79세. 1979년 총무국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년 명예퇴직했음.

구자걸(기술)
4월 10일 심장마비로 별세. 향년 71세. 1969년 MBC 기술국에 입사해 제작기술부에서 근무했음. 1991년 SBS로 이직해서 정년퇴직했음.

김춘규(업무)
4월 22일 노환으로 별세. 향년 84세. 1968년 춘천MBC 입사. 1970년 본사 라디오 운행 및 업무부 근무.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이직. 1991년 명예퇴직했음.

회비와 발전기금계좌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회/원/동/정

김성수(보도)

2월 14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선임됐다.

김 회원은 본사 보도국장, 목포MBC 사장 등을 거친 뒤 20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으로 활동했다.

박노흥(보도)

2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BJC) 회장에 취임했다.

박 회원은 대구MBC, 마산MBC 사장을 지냈다. 한편 사무총장에는 류종현(보도) 회원이 선임됐다.

김태홍(기술)

3월 1일자로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공연기획연출 담당 교수로 선임됐다.

김 회원은 백석대학교 이전에 MBC 아카데미 교수로 2002년부터2019년까지 17년간 강의했으며, 또한 인덕대학교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강의를 해왔다.

최창섭(ANN)

4월 13일부터 CGN TV 정오 뉴스에서 '교회 용어 바로 잡기'라는 제목으로 100초짜리 방송을 시작했다. CGN TV는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전문채널이다.

송일준(편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에 초대해 궁금한사항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답하는 새로운 형식의 본격 정치 토크 프로그램인 "2020 지역 국회의원총회"를 5월 16일 광주 MBC에서 위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구영회 (보도)

MBC를 퇴직한 후 고향인 지리산 자락에 은거하며 글을 써온 구 회원이 다섯 번째 수필집 〈가끔은 고독할 필요가 있다〉를 펴냈다. 고독에 대한 저자의 성찰이 '코로나19'로 '혼자의 시간'을 맞게 된 독자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선사한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순곤(편제)

이응주(편제)

오 령(보도)

'젓가락으로 들어 올린 지구 2'

최노석(보도)

나는 1994년 '젓가락으로 들어 올린 지구'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경향신문 파리특파원을 지내고 귀국해서 3년에 걸쳐 쓴 책이다. '왜 유럽은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가?'를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 나는 우리나라도 지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확인했다.

젓가락이란 'made in Korea'를 뜻하고, 지구는 콩의 모습을 확대한 것이다. 한국인은 젓가락으로 콩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민족이다. 서양인은 결코 할 수 없다. 콩을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콩처럼 생긴 지구인들 왜 들어 올리지 못할 것인가 하는 오기가 담긴 책이었다. 다행히 독자들의 반응이 커서 90년대 10년간 발간된 모든 책 중 '베스트셀러 100권'에 뽑혔다.

지나간 책 얘기를 길게 쓴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때와 거의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90년대 초, 우리는 '5천 년 역사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산업을 눈으로 직접 봤다. 1994년 10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256M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고, 조선업의 선박 수주가 세계 최대 물량을 이룩했다. 세계의 변방에 있던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이동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자본력도 기술력도 미미했던 우리가 오직 '꿈' 하나로 이룩해 낸 성과였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조그만 성과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던 것이다. GNP 2만불에서 3만불 사이를 10년 이상이나 허우적대는 걸 보면서 책을 썼던 것을 후회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다시 그런 기회가 왔다. 코로나19 덕분이다. 30년 전 내 눈에 보였던 도약을 향한 여러 조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의료와 바이오 분야. 구체적으로는 진단키트를 필두로 디지털 엑스레이,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의약품 원료, 임상시험 수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다투어 러브 콜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다.

'젓가락으로 들어 올린 지구 1'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산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피땀 흘려 이룩해 온 ICT로 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 K바이오다.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동시킬 동력으로 보인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분통해 하는 동안 꾸준하게 새로운 꿈을 꾸며 도약을 위해 용기를 잃지 않았던 기업인들과 스타트 업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다. 나는 이를 '젓가락으로 들어 올린 지구 2'라고 칭하고 싶다. 디스카운트 됐던 한국의 위상이 프리미엄급으로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핑계와 두려움'이다.

먼저, 우리에게는 핑계가 너무 많다. 특히 안 되는 핑계가 수두룩하다. 기업은 정부만 쳐다본다. 사업을 잘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규제로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강성노조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젓가락으로 들어 올린 지구 1'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자금도 기술도 없었던 그 때에 비해 지금은 엄청나게 더 나은 환경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요즘 경영자들에게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핑계를 대는 시간에 한 가지라도 더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은 없어진 『한국전기초자』의 서두칠 대표가 그 점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는 공고생이 주축이 된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특허를 잇달아 획득하며 망해버린 회사를 그 분야의 세계 제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도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수많은 스타트 업 기업들이 자기 집 차고에서 창업을 하여 세계 최고 기업들을 이뤄냈다. 얼마 전 한 조사에서 청년들의 꿈이 '빌딩주"라고 했다는 것을 읽었다. 부모 유산으로 건물이나 하나 얻어 월세나 받으며 평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무슨 막말인가! 기껏 한국 젊은이의 꿈이 이것이라면 대한민국號는 깃발을 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 원인이라고 봤다. 미지의 길.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 지불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어떤 전진도 있을 수 없다. 30년 만에 찾아 온 기회.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 뭔가가 나를 지배한다'. 미국의 작가 엘리스 워커의 말이다.

축사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MBC사우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과 1년 전 KBS사우회도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MBC사우회 30년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우회는, 참여하면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매력이 있어야 하고, 보고 싶었던 선, 후배들의 얼굴, 그리운 사람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어울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의 기틀은 기본이고,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MBC사우회와 KBS사우회는 비슷한 시기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기에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지금 대 내외적으로 미디어 환경은 심한 격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큰 흐름으로 지상파 방송의 앞날이 순조롭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각 사 임직원들의 현명한 지혜와 적극적인 대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믿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 움직일 수 있는 행동반경이 좁아져 사우회 본연의 임무인 친목활동 추진에 큰 타격을 받아서 더 더욱 마음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년기, 노년기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과 자랑을 함께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의 중심에 사우회가 있습니다. 보람 있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후를 무의미하게 보낸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회원들 앞에 더 많이 다가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함께 일했던 MBC사우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진정 고귀한 인격을 갖추고 마음이 따뜻한 선후배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사 사우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방송사의 중요한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KBS사우회 3,000명 회우를 대표해서 MBC사우회 차인태 회장님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방송공사 사우회
회장 김 광 일

사람 냄새와 향기가 나는 사우회로…

MBC사우회 창립 3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SBS사우회는 올해 창립 14주년을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10대 청소년, 좋게 보면 순수하고 꿈 많은, 아름다운 홍안의 소년이긴 합니다만 아직 철부지에다 부족한 것이 많은 나이입니다.

제가 SBS사우회 회장을 맡은 지 이제 2년 남짓 됩니다. 610여 명의 회원을 가진 SBS사우회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1,400여 명을 포용하고 있는 거대한 MBC사우회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런 제가 MBC사우회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람되고 송구스럽게 느껴집니다.

공자님께서는 '三十而立'이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뜻이 확고하게 서는 나이가 30세'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30년이면 그 조직의 100년 대계大計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차인태 선배님께서 MBC사우회 회장을 맡은 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선배님은 악성 림프종양암을 극복한 강인한 의지력,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리더를 보면 그 조직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저는 MBC사우회에서 확인합니다.

지난해 3월 아나운서클럽 정기총회 때 "아나운서는 선택받은 사람, 고독한 직업,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취임사를 기억합니다. '끝없이 노력하는' 차 회장님이 이끄시는 MBC사우회가 그런 의미에서 '끝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합니다. MBC사우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욱 알차고 튼튼한 사우들의 친목단체로서 우리나라 방송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늘 설레게 합니다. 아나운서 입사 당시 그 첫 마음과, MBC사우회 창립 당시 첫 마음을 잃지 마시고, 처음 세운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추진하셔서 '멋지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사람 사는 냄새와 향기가 나는 그런 훈훈한 MBC사우회'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MBC사우회 창립 3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BS사우회
회장 손 석 기

TEDDY VALLEY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기상변화가 심한 제주에서도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최고의 지리적 위치를 자랑합니다. 평균고도 190m의 낮은 위치는 안개, 바람, 비의 영향이 적어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평화로변에 위치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제주공항에서 30분, 중문까지 7분 거리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라산과 산방산이 어깨를 나란히 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골퍼들에겐 축복받은 땅입니다.

699-92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덕면 한창로 365
|문의| (064) 793-1000

오늘 하루 일기

구 영 회(보도)

간밤에 10시쯤 잠을 청했는데 눈을 떠 보니 아직 캄캄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막 지나 있었다. 전혀 의도한 바 없는데도 내 몸이 마치 참선수행을 하는 스님이 깨어나는 신체리듬과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생각에 혼자 웃음이 났다. 근래 들어 기상 시간이 이전보다 앞당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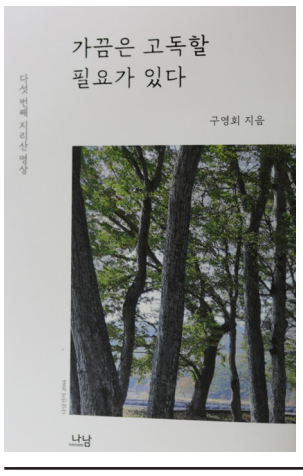
조금 더 자 볼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정신은 잠을 자던 무의식 상태로부터 깨어나 다시 의식 상태로 돌아와 있었지만, 몸은 아직 준비가 덜 된 부조화 상태였다.

이럴 때는 정신이 강제로 몸을 일으켜 심신 모두 뭔가를 하도록 움직여야 제대로 깨어날 것이었다.

일단 깨어났으니 살아 있는 인간답게 굴어야 했다. 하지만 꼭두새벽에 할 일이 마땅치 않았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책상 앞에 앉아 그나마 글이라도 써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활동이었다.

신기하게도, 비록 심신이 아직 부스스하여 어설픈 상태더라도 막상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점차 초점이 모이면서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마치 작동할 의미를 찾은 듯 되곤 했다.

이렇게 글쓰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환하게 밝아 아침 7시를 넘기고 있었다. 무려 네 시간 가까이 집중된 일을 한 탓에 다시 피곤이 밀려왔다. 이제는 잠을 좀 잘 수 있겠다 싶어 구들방 이부자리에 다시 누웠다. 무거워진 눈꺼풀이 닫히기 전, 서울의 가족에게 미리 메시지로 아침 인사를 보낸 뒤 이내 잠이 들었다.



단잠을 곤히 자고 있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시간을 보니 겨우 20분가량이 지나 있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 후배였다. 전화 내용을 들으니 당장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후배가 나에게 땔감을 챙겨 준다고 해서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는데 곧 트럭이 집에 도착할 것이라는 통보였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얼른 대문으로 달려갔다. 평소에는 작은 쪽문을 사용하지만 마당까지 땔감 트럭이 들어오려면 대문 전체의 잠금장치를 풀어 활짝 열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갑자기 비상이 걸려 부지런을 떨어야 했다.

트럭은 곧 도착했다. 마침내 마당으로 들어선 트럭에는 지난 태풍에 쓰러진 소나무들이 베어져 가득 실려 있었다.

후배와 함께 온 일행을 도와 마당 한구석 빈터에 재빨리 땔감을 부렸다. 정말 고맙게도 트럭은 한 번 더 땔감을 실어다 주었다. 졸지에 두 트럭 분량의 겨우살이 땔감을 얻게 되었다.

이미 나에게는 이번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땔감이 있었지만, 고마운 후배와 고마운 태풍 덕분에 앞으로 두 번의 겨울을 걱정 없이 지낼 만한 구들방 식량이 더 확보되었으니 마음속으로 무척 배가 불렀다.

산자락 외딴 마을에서 지내는 나에게 그리고 겨울이 사실상 반년 가까이 차지하는 이곳 생활에, 땔감은 너무나 소중하고 필수불가결한 소모품이다. 그러다 보니 땔감이 떨어져 가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고, 땔감이 풍족하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땔감이란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보다 더 긴요하게 여겨지는 '제1식량'이라고 부를 만했다.

그런 식량이 2년 치 더 마련되었으니 이제 당분간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마음부자가 된 것이다. 나아가 오늘은 나에게 고마운 이웃의 도움이 손길을 내민 행운의 날이 된 것이다.

나는 마당에 부려진 땔감더미를 몇 번씩 바라보며 만족감을 한껏 누렸다. 만족감이 내 몸과 마음에 우러났기 때문일까. 나는 다시 단잠에 떨어져 정오가 지나서야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늘은 유독 세 번이나 잠을 자고 세 번이나 잠에서 깨어난 별난 날이 되었다.

오후가 되니 약간 시장기가 느껴졌다. 뒤늦게 세수한 뒤 가까운 마을에 있는 식당에 가려고 옷을 챙겨 입다가, 문득 이곳 나의 옷가지 중에서 단 한 벌인 춘추복 상의가 눈에 띄었다. 시골생활에서 거의 입어본 적 없는 양복 재킷이었다. 왠지 오늘 한번 입고 나가고 싶었다. 내 딴엔 별난 차림이었다.

인심 좋은 식당 주인이 지역 주민에게만 반값에 제공하는 식사는 놀랍게도 4천 원짜리 쇠고기 카레였다. 돈 내고 먹으면서도 돈 버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메뉴였다.

모처럼 드물게 양복 재킷을 입고 나선 나는 식당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놓아두고 서울의 지인이 전송해 준 기타 연주곡까지 틀어 놓고서는 마치 시골에 처음 여행 온, 어울리지 않는 도회지 신사 같은 생뚱맞은 모습으로 '혼밥'을 즐겼다.

내가 시골에서 혼자 외식을 하면서, 그것도 음악까지 곁들여 식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오늘 나는 별나게 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은 하루였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여생의 유일한 날이기도 했다.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유일하고 특별한 날이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나는 살고 있었다.

늦점심을 마치고, 이번에는 꽤 떨어진 곳에 있는 단골 커피숍으로 차를 몰고 갔다.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커피숍으로 가는 산자락 시골길은 나에게 언제나 평온함을 선물했고, 가끔 하루 중 유일한 나들이 코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저수지를 지날 때면 낮에는 은빛 물결이 반짝이는 게 무척 좋았고 저녁에는 붉은 황금빛 물결이 역시 좋았다.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써내려 갔다. 도중에 메시지 도착음이 들렸다. 이곳 지리산 일대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10년간 함께 지냈던 여자와 마침내 결별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동생에게 '외로움'이 불쑥 찾아온 모양이었다. 나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야. 지나간 일은 모두 섬진강물에 떠내려 보내기 바란다. 다시 새롭게 살면 그만이다. 인생길에 무슨 중뿔난 것 있더냐. 조만간 식사 같이하자.

어느 책에서 읽었던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글이 문득 떠올랐다.

그렇다. 우리는 잊힐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고 심각해 보이는 바로 그것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언젠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질 일이나 혹은 보잘것없고 우습게 여겨질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윽고 저녁이 되었다.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었다. 오늘 나의 하루가 또 마침내 저물었다. 책상 앞 창문 너머로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아랫집 지붕 위로 저만치서 가로등이 창백한 빛을 내며 저 혼자 고독하게 고샅길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나의 하루는 어느덧 과거 속으로 사라져 기억창고 저편 깊숙이 숨을 것이다. 훗날 내가 그 기억창고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인간의 기억은 정말 많은 것을 부질없이 품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영영 상실하기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그냥 순간순간을 '완전 연소'하는 일뿐이다.

※ 이 글은 구 회원이 최근에 발간한 책 「가끔은 고독할 필요가 있다」에서 발췌한 것이다.

인터뷰

검도는 평생 친구

이걸범(편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나름대로 자기에게 어울리는 한 가지를 택해 꾸준히 오래 해야 효과를 본다는 점이다. 30여 년간 검도를 연마해온 해병대 교관 출신 이걸범(편제)회원을 만났다.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검도를 시작했나요.

마흔 살이 되던 1989년에 입문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검도를 한다고 해서 도장에 데려다주러 오가다가, 어느 날 유심히 지켜봤더니 죽도를 내려치면서 내지르는 찌렁찌렁한 기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홀딱 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어딜 가서 그렇게 맘 놓고 후려치고 악을 써보겠어요? 하하. 아들은 3년 하다가 중학교 진학하면서 그만뒀지만 저는 그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30년쯤 했으면 상당히 고단자시겠네요.

햇수로는 오래 됐지만 도중에 좀 쉬기도 했고, 또 '즐겁게 운동하면 됐지 꼭 고단자일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에 2001년에 3단을 딴 후로는 승단심사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운동은 계속 하고 있구요.

4단부터는 사범 자격이 주어져서 어느 도장에 가서라도 지도를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서 '만년3단'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도는 '몇 단'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운동입니다.

검도의 매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검도의 목적은 정신단련, 신체연마, 기술숙달입니다. 검도는 연습한 만큼 실력이 드러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검도수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소하지만 도복을 정확하게 개는 동작 또한 수련의 과정으로 볼만큼 섬세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평소에 잘 쓰지않는 근육을 활용하고, 특히 바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검도하는 분들은 허리가 굽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검도는 승부 보다는 예의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상대를 공격할 때 '머리', '허리', 손목' 등 공격하는 부분을 큰소리로 알려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의 한 표현입니다.

검(칼)으로 하는 격렬한 운동인 만큼 자칫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서로가 배려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검도를 하면 순발력과 민첩함, 성취감 등 얻는 게 참 많습니다. 일단 시작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작하기에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드신 초보자에게 무리한 훈련은 시키지 않습니다. 안 쓰던 근육 풀어주는 운동, 복식호흡하는 법, 수련 전에 반드시 하는 명상, 단전호흡 등 기술 습득 말고도 도장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도장에 가보면 80세는 많고요, 90세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 수련하신 분들이지만, 그만큼 고령자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대련할 때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니다.

검도에 관한 에피소드도 많으시겠어요.

특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중학생 때 배운 담배를 검도로 확실히 끊었다는 것입니다.

운동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어느 핸가, '성공시대' 주인공인 어느 미용실 원장님을 녹화할 때 마이크를 채워드리려고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윽, 담배냄새!'하며 얼굴을 찌푸리시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미안했던지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이는 그분의 얼굴이 한동안 풀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금연을 굳게 결심했었지만, 그게 어디 쉽게 끊어집니까? 이걸 검도로 풀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연습에 몰두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고 그만큼 물을 마시고 했더니 니코틴이 씻겨 나갔는지 30년 넘게 피웠던 담배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또 한 번은 1915년 경 초저녁 무렵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고등학생 셋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눈에 거슬리더라구요.

그래서 "야,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돼?"하고 나무랐더니 그중에 한 녀석이 "아이 씨,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어? 잘못하면 망신 당하겠네?'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뭐라고?!!" 소리치면서 휴대폰을 그 녀석 턱밑으로 들이댔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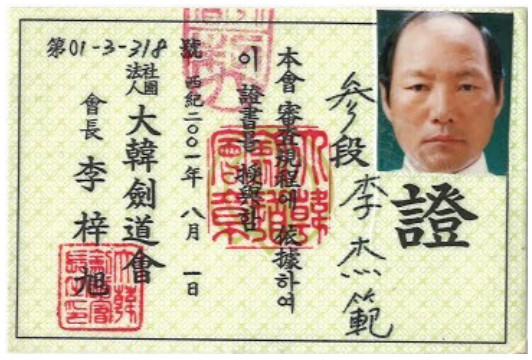
갑작스런 공격에 이 녀석이 움찔하더니 슬금슬금 내빼는데 저도 모르게 후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되려 혼났겠죠? 하하

MBC에 계실 때 검도 동호회도 만드셨죠?

네, 2006년에 제가 주동해서 'MBC검우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원이 4~50명 됐어요. 기자, 카메라맨, 성우, 탤런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주2회 무용단연습실에서 사범님 모시고 수련했었죠. 3년쯤 했는데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돈이 끊어지는 바람에 할 수없이 문을 닫았구요. 그때 같이 수련했던 분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짚단베기할 때 보면 진검도 사용하던데요

처음 입문하면 나무로 된 목검으로 2~3개월 쯤 훈련하다가 죽도로 바꿉니다. 유단자로서 어느 정도 수련이 되면 진검을 배우는데 진검술에는 형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수련합니다. 짚단베기는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니고 일종의 취미나 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도에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는 도복과 죽도와 호구 세 가지고, 호구는 호면(얼굴보호), 호완(손목보호), 갑(가슴보호), 갑상(몸통을 감는 갑상띠와 허리끈)으로 세분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다 보니 도복은 여유있게 마련하고요. 죽도도 두,세개 갖춥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장만하면 평생 쓰죠.

승급, 승단은 어떻게 하나요

승급은 9급부터 1급까지 하는데, 성인은 5급부터 시작합니다. 수련 후 2년이 지나면 초단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초단 취득 후 1년 이상, 2단 취득 후 2년 이상, 3단 취득 후 3년 이상...이런 단계로 승단이 이뤄집니다. 다만 8단은 7단 획득 후 10년 이상 수련과 만 48세 이상이라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야 고단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꾸준하게 수련해야 된다는 의미기 때문에 검도인의 겸손과 자부심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검도가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대련에서 설령 자기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심판에게 항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도는 승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이 아니라 예와 겸손을 가르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우회원님들 중에서 뒤늦게나마 검도를 시작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편집장)

오늘은 오늘의 재미와 의미가 있다

이화여대 교수, OBS사장, jtbc대PD, 서울문화재단 대표, 아주대 교수 등 화려한 이력을 경험한 주철환(편제)회원이 열여섯 번째 저서를 출간했다.

주 철 환(편제)

20년 전쯤의 일이다. '매스컴과 사회'라는 교양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로 '유서'를 써보라 했는데 그게 어쩐 일로 신문에 기사로 실리기까지 했다.

초점은 '괴짜교수의 기이한 수업'이 아니라 '스무 살 남짓의 젊은이들이 가상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 뜻밖에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고마움'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찾아볼 수 없었고 가족과 친구를 향한 사랑이 칸칸이 걸려 있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작아지기도 하지만 착해지기도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삶은 유한하고 글은 무한하다.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은 내가 죽은 후에도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글은 일종의 유서다. 내 생일에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

"너 아빠가 쓴 책 끝까지 읽어본 적 없지? 아빠 죽거든 제사는 지내지 말고 기일에 아빠 책 꺼내 글 한편씩 천천히 읽어봐." 그 말을 전하며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산 자(데미 무어)와 죽은 자(패트릭 스웨이지)가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을 떠올렸다. 먼 훗날 언젠가 살아있는 아들 옆에 죽은 내가 앉아서 흐뭇한 아빠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열여섯 번째 책의 머리말을 쓴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고 대단하며 감사하고 행복하다.

역시 책은 고마운 분에게 바쳐야 제격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고모님이다. 나를 키워준 분인데 한 번도 내 글을 읽지 않으셨다.

학교에 다닌 일이 없고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셨지만 내 이야기를 항상 즐겁게 들어주셨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탁자, 의자 가까이에 그분의 사진이 놓여 있다. 내가 집에 머무는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분은 웃고 계신다. 어쩌면 나는 그분 곁에서 매일 유서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모님은 생전에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매일 가게 문을 열자마자 라디오를 틀어 놓았다. 가게라고 해봤자 세 평이 될까 말까한 구멍가게였다. 당시 라디오에서 쏟아지는 노래와 사연들이,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하나 소중한 문화 콘텐츠였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고모님과 함께 흥얼거리며 어린 소년은 의문에 잠겼다. 왜 동백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을까.

흑산도아가씨는 왜 육지를 바라보다가 검게 타버렸을까. 섬마을선생님은 왜 해당화를 남겨두고 홀연히 떠났을까.

고모님 곁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은 지금도 나의 글감이 되어 통장을 채워준다. 고모님은 여전히 나를 먹고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내가 뛰어다니던 좁은 시장골목에선 "쟤가 그 부모 없는 애라면서요"라는 말이 내 귀에까지 들렸다. 그래도 난 기죽지 않았다. 부모는 없었지만 보호자가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고모님은 나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 사이에 항상 서 계셨다. 내가 책 읽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셨고 내 글이 학교신문에 실린 사실을 기뻐하고 주변에 자랑하셨다.

돈암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신문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런 걸 보면 내가 마냥 수줍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글 쓰는 취미를 갖게 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칭찬해주신 선생님이 계셨던 걸 은혜로 받아들인다.

4학년 때 전국어린이백일장에 나가도록 추천해주신 담임선생이 정 상 선생님이셨다. 나는 그 대회에서 〈육교〉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 그야말로 '화려한' 데뷔 무대였다.

중 · 고등학교 때는 제자의 얄팍한 재주를 발견하고 크게 키워주신 선생님을 만났다. 그분의 이름을 오늘 다시 적어본다. 신철수 선생님. 예전에 그분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다빈치를 만나기 전까지 모나리자는 종이와 물감에 불과했을 것이다. 로댕이 다가와 손을 내밀기 전만 해도 '생각하는 사람'은 구리 조각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를 잘 만나면 명작이 되고 누군가를 잘못 만나면 쓰레기가 된다."

과분한 격려와 칭찬 덕분에 나는 쑥쑥 자라서 모교에 국어교사로 취직했다. 그리고 체중 미달로 4년이나 징병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늦게 입대한 덕분에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송사에 PD로 입사하게 된다.

이 책의 제목은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방송사 PD로 일하던 시절에 고등학생 몇 명이 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모교 후배들로 교지 편집위원들이었다. 끝날 즈음에 후배들이 "혹시 선배님은 좌우명 같은 게 있나요?"라고 물었다.

없다고 말하면 왠지 없어 보일까봐 잠시 생각할 틈을 구한 후

내가 던진 답변이 바로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게 죽자'였다. 즉흥적으로 답했지만 재미와 의미는 그 후 내 삶의 흔들리지 않는 두 축이 됐다. 재미없는 책은 읽기 싫다. 재미없는 사람은 만나기 싫다.

그동안 재미를 추구하며 즐겁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재미로 끝나서는 마지막이 허전하다. 재미의 끝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은 보람이 없다.

인생 곳곳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의미를 하나씩 발견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이별할 때 '재미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성공한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의 재미를 누리자.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의미를 찾아보자. 재미와 의미를 실컷 누리면 사는 데 미련과 후회는 없다.